

## ▶ 가족

## 기혼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지각 경향

최 미 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 석사)

오 윤 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부교수)

최근 중년기 연구를 보면 위기감 보다는 발달 전환기 측면이 논의되면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등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1960년대 이후 논의된 삶의 질의 다른 개념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다루기 시작한 심리학의 주요 개념이다. 즉 개인이 현재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정서 상태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건강, 수면, 소득, 교육요건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최근에는 객관적인 접근 보다는 주관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많이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가족생활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혼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이 어떠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인 및 가족생활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 거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으며 질문지를 사용하여 최종 분석에 총 325부가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분포는 40대가 62.8%, 30대가 24.6%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30대와 40대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신체적 건강정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65.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가족의 주관적 행복정도는 64.0%가 비교적 행복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안녕감 보다 부정적인 안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생활 전반에 대한 인지적 안녕감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인지적 안녕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사항은 사람들의 정서 혹은 기분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평소 자신의 생활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하도록 측정하였다. 먼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결과는 재미있는 것보다는 지루하다는 것이 4.98, 즐거운과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는 5.10, 가치있는 것과 쓸모있는데 대해서는 5.28, 우호적인과 외로운 에서는 5.13, 가득찬과 텅빈 감정에 있어서는 5.0, 희망있는과 비관적에 있어서는 5.43, 보람있는과 실망스러운 감정에 있어서는 5.34, 행운이 따름과 운이 없는 항목에서는 4.95로 나타나 양극적인 주관적 안녕감에서 비교적 가운데 범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지적 안녕감은 72.39로 개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인지적 안녕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혼 여성의 개인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을 비교적 낮게 지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또는 해결적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관련변인들을 탐색하여 기혼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지속적 대안 마련이 준비되어야 한다.